

이달의 초점

2023년 노인실태조사와 노년기 삶의 특성

노인의 경제생활 특성과 변화: 일과 소득

|황남희

노인의 여가 및 정보화 현황

|김세진

노인의 건강과 돌봄

|강은내

노인의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이선희

노인의 생활환경과 노후생활 인식

|주보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노인의 생활환경과 노후생활 인식¹⁾

Older Koreans' Living Environments and Perceptions of Living in Old Age

주보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연구실 부연구위원

이 글에서는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노인이 거주하는 생활환경과 노후생활 전반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노인들은 대부분 최대한 오래 살던 집에 살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고령자들이 안전하게 지역사회에서 외출하고, 활동할 수 있는 물리적 인프라는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지역 간에도 비교적 큰 차이를 보였다. 노후생활 인식에서는 이전보다 연령 차별을 경험하는 노인들이 감소하고 있고, 생애 말기 중요한 의사결정인 재산 처리 방식에서는 자신을 위해 재산을 활용하겠다는 비율이 늘어나 자신의 삶의 질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1 들어가며

베이비부머의 노인인구 편입이 본격화되면 노인 집단은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역사상 전례가 없을 정도로 건강하고, 교육 수준이 높으며, 활동적인 젊은 노인 집단은 그 규모와 다양성 측면에서 노인 집단 전체를 재정의하는 수준에

이를 것이다. 한국 노인실태조사는 2020년 조사에서 처음으로 베이비부머세대를 조사 대상으로 포함하였는데, 2023년에는 더 많은 베이비부머가 노인으로서 조사에 참여하였으므로 한국 노인의 삶과 인식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의미를 가진다. 이 글에서는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생활환경과 노후생활 인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

1) 이 글은 강은나, 김혜수, 정찬우, 김세진, 이선희, 주보혜, 황남희, 김경래, 이혜정, 최경덕. (2023).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제10장 내용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다. 노인의 생활환경과 함께 노후생활 전반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는 것은 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대안을 논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전반적 사회 변화로 생활 환경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주거’라는 개념은 주거 기능을 제공하는 사회 및 건축 환경과 개인 간의 모든 상호작용을 포함한다(Friedrich & Ringel, 2019). 따라서 노인과 공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것은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나은 노년 생활을 지원하는 데 필수적이다. 지금까지 다양한 국내외 연구에서 노인들이 살던 집에 최대한 오래 거주(AIP: Ageing in Place)하고 싶은 욕구가 확인된 바 있다. ‘노년기’라는 생애주기 단계에서 집과 근린 환경이 특별한 중요성을 갖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행동반경의 제한과 가정 및 이웃 지역에 대한 시간적 집중 때문이다. 익숙한 생활환경에 거주하는 것은 노인들의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을 최대한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도 장려되고 있다. 주목할 점은, AIP 개념이 단순히 살던 ‘집’에서 오래 거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익숙하고 친한 사람들과 가까이 있고, 이웃과 소통하며, 일상용품을 구매할 수 있고, 소매점, 의료서비스 또는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AIP 정책에서 주택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 인프라와 사회적 교류 및 이동 여건 등을 두루 고려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 글에서는 노인들의 지역환경

실태를 물리적 환경, 지역사회 인프라, 외출 여건, 교통수단 활용을 포함한 확장된 범위로 파악하고자 한다. 먼저 노인의 생활상을 물리적 환경과 생활 인프라 측면에서 살펴본다. 최근에는 주택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적극적 개입으로 주택을 노인 거주에 적합하게 수리, 개조하는 것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서는 노인의 안전한 주택 거주에 도움이 되는 여러 주택 개조 항목과 안전기기 종류를 제시하고, 설치 여부와 설치 희망 여부를 묻는 문항을 추가했다. 이어서 노인의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의 전제가 되는 외출 여건, 교통수단 활용을 조사하였다.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불편함 없이 외출하고 필요한 교통수단을 쉽게 이용하는 것은 고립과 단절을 예방하고 사회적 관계를 맺는 데 중요하다. 특히 최근에는 운전이 익숙한 노인들이 많아지면서 고령 운전자가 양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실태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한편 노후생활 인식을 살펴보는 것은 사람들이 노후에 대해 가지고 있는 걱정과 기대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노인들의 노후생활 인식은 노인 집단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기도 하므로, 현재의 노인이 과거 노인 집단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제공할 수 있다. 노후생활인식에서는 먼저 노인으로서 사회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다고 인식하는지를 연령 차별 인식을 통해 살펴보았다. 노인 연령에 대한 인식 또한 노인들의 자아상, 사회적 노인상 등을 두루 포함한

다는 점에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노년기 또는 생애말기 주요 의사결정인 재산처리 방식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고자 한다. 노후생활인식은 노인 집단의 인식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2017년, 2020년 결과와 비교하여 제시한다.

2 노인의 지역환경 실태 및 희망 거주 형태

가. 노인의 희망 거주 형태

노인실태조사는 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독립적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황과 어려운 상황으로 구분하여 희망 거주 형태를 파악한다. 건강한 상태와 달리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는 자유의지로 거주 형태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자유 선택의 어려움을 전제한 조사 결과가 주는 의미도 적지 않다. 2023년 조사에서는 학계 전문가와 이용자 의견을 반영하여 희망 거주 형태 조사(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전용주택 선택향을 분리함으로써 희망 거주 형태의 다양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향후 노인의 거주에 형태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대안적 형태의 노인전용주택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번 조사의 결과는 노인의 거주 선호를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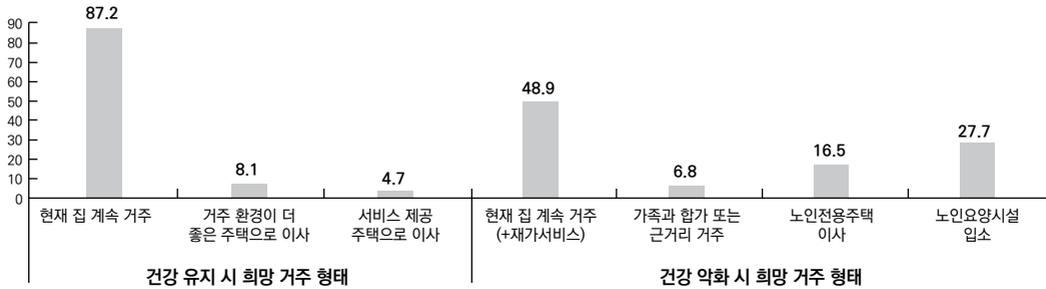
노인 희망 거주 형태에 대한 2023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현재 집에서 계속 산다’는 응답이

87.2%로 가장 높았다. 8.1%는 ‘거주 환경이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한다’, 4.7%는 ‘식사, 생활 편의 서비스 등이 제공되는 노인전용주택으로 이사한다’를 선택했다. 종합하면 노인의 대다수는 건강이 유지된다면 현재 집 또는 거주 환경이 좋은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95.3%)고 응답했고, 별도의 노인 주택을 희망하는 비율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전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현재 집 또는 거주 환경이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희망하는 비율이 2017년 99.8%, 2020년 95.0%로, 건강이 유지될 시 현재 집 또는 더 나은 주택에서 생활을 이어 가고자 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한편 노인들은 건강이 악화되어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더라도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현재 집에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는 비율은 48.9%, 자녀나 형제자매 집에서 동거를 희망하는 비율은 2.5%, 자녀 또는 형제자매 집 근처로 이사하여 따로 사는 것을 희망하는 비율은 4.3%이다. 종합하면 재가서비스를 받으면서 자녀 등의 가족과 동거 또는 가까운 곳에 거주하면서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55.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건강 악화 시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비율은 27.7%, 노인전용주택으로 이사를 원하는 비율은 16.5%로 조사되어, 총 44.2%는 지역사회가 아닌 시설이나 노인을 위한 전용 주택 이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2017년(31.9%), 2020년(31.3%)보다는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전용주택 이용을 희망하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그림 1] 희망 거주 형태

(단위: %)



주: 본인 응답자 9955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가중치를 반영하여 계산한 결과임.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가 도식화함.
출처: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 강은나 외, 2023,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584, <표 10-21>, p. 587, <표 10-22>.

나. 노인의 거주 환경

1) 주거지의 생활편리성과 주택 내 노인 친화적 개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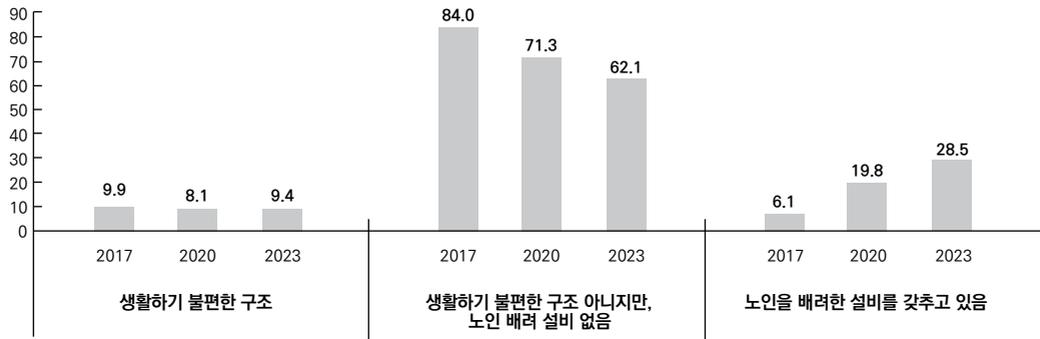
노인실태조사에서는 2011년부터 노인을 위한 설비를 갖춘 비율을 조사원 확인 문항으로 포함하고 있다. 노인을 배려한 설비는 노인이 주택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을 수리·개조 또는 안전기기·용품을 설치하는 것으로, 화장실이나 욕실 안전손잡이나 안전바, 미끄럼 방지 시공 등이 대표적이다. 2023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노인 중 주거 환경이 불편한 구조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은 9.4%, 주거 환경이 불편하지는 않지만 노인을 배려한 설비가 없는 비율은 62.1%, 노인을 배려한 설비가 있는 비율은 28.5%로 나타났다. 노인을 위한 설비를 갖춘 비율은 2017년 6.1%, 2020년

19.8%를 기록한 바 있는데, 조사 때마다 큰 폭으로 설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노인들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023년 조사에서는 노인의 거주 안전성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는 경향을 반영하여 주택 개조 항목과 안전기기 종류 관련 설치 여부 및 필요성에 대한 문항을 추가하였다. 조사 결과 화재·가스 감지기와 가스 안전 차단기는 설치율이 각각 47.1%, 46.5%로 조사 항목 중 가장 설치 비율이 높았다. 이에 비해 응급 안전기기는 설치율이 9.8%로 가장 낮았다. 화장실(욕실) 안전손잡이(18.2%), 휠체어 통행이 가능한 출입문과 복도 개조(13.8%) 등은 설치 및 개조한 비율이 10%대에 머물렀다. 즉 비교적 설치가 간단한 화재·가스 감지기, 가스 안전 차단기는 설치 비율이 높으나, 공사나 시공에 비용,

[그림 2] 주거지의 생활편리성(조사원 판단)

(단위: %)



주: 전체 응답자 1만 78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가중치를 반영하여 계산한 결과임.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가 도식화함.

- 출처: 1)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 강은나 외, 2023,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554, <표 10-4>.
 2)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이윤경 외, 2020,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555, <표 11-4>.
 3)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정경희 외, 2017,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586, <표 13-5>.

[표 1] 설치 및 개조 여부와 필요성

(단위: %)

	화장실이나 욕실 안전손잡이나 안전바	열고 닫기 쉬운 화장실 또는 욕실 문 손잡이	문턱, 주택 내 계단 등 단차 (높이 차이) 제거	미끄럼 방지 매트, 패드 또는 낙상 방지 기능성 바닥재 설치	휠체어 통행 가능한 넓은 출입문과 복도	화재·가스 감지기	가스 안전 차단기	응급 안전 기기
설치 및 개조 여부 ¹	18.2	29.7	22.6	24.7	13.8	47.1	46.5	9.8
설치 및 개조 필요성 ²	38.2	31.7	35.8	41.9	27.7	45.1	44.1	38.8

주: 1)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가중치를 반영하여 계산한 결과임.

2) 전체 응답자 1만 78명 중 각 설비·용품별로 설치 및 개조를 하지 않았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함.
 출처: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 강은나 외, 2023,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565, <표 10-9>.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설치 및 개조는 실행률이 낮았다.

현재 설치 및 개조 비율이 다소 낮지만,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대표적 항목은 응급 안전기기, 욕실 안전손잡이나 안전바, 미끄럼 방지 매트 등이

다. 응급 안전기기는 현재 설치율은 9.8%에 그쳤

으나, 미설치 노인의 38.8%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욕실 안전손잡이나 안전바 또한 설치 비율은 18.2%에 불과하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비율은 38.2%로 비교적 높았다. 미끄럼 방지 매트나 낙상 방지를 위한 기능성 바닥재는 현재 설치 비율이 24.7%이지만,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1.9%로 조사되었다.

2) 지역사회 인프라

물리적인 주택뿐만 아니라 주거지와 커뮤니티까지 주거 환경 전반으로 노인정책의 관심이 확장되고 있다. 특히 근거리에 주요 기관, 시설이 위치하는 것은 생활의 편리성을 높인다. 노인실태조사는 지역사회 인프라를 확인하기 위해 노인의 거주지로부터 주요 기관, 시설까지의 이동 시간을 조사한다. 조사 결과 지역사회 인프라 중 버스정류장·지하철

[표 2] 주요 시설까지 도보 이동 거리

(단위: %, 명)

구분	걸어서 5분 미만	걸어서 5분~15분	걸어서 15분~30분	걸어서 30분~1시간	걸어서 1시간 이상	(명)
시장, 슈퍼 등 일상용품 구매 장소(전체)	10.6	55.4	22.0	6.3	5.8	(10,078)
동부	12.5	63.0	21.4	2.4	0.6	(7,450)
읍·면부	5.2	33.8	23.6	17.0	20.4	(2,628)
병·의원, 보건소 등 보건의료기관(전체)	4.2	36.4	39.0	13.1	7.3	(10,078)
동부	5.3	42.7	41.8	8.9	1.3	(7,450)
읍·면부	1.3	18.2	31.0	25.0	24.5	(2,628)
행정복지센터(전체)	3.5	28.5	43.4	16.2	8.3	(10,078)
동부	4.4	34.0	48.3	11.2	2.1	(7,450)
읍·면부	1.2	13.0	29.5	30.3	25.9	(2,628)
노인(종합)복지관(전체)	1.7	19.5	42.3	24.0	12.5	(10,078)
동부	2.1	23.2	48.0	20.4	6.2	(7,450)
읍·면부	0.5	8.9	26.0	34.3	30.3	(2,628)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여성회관 등(전체)	1.8	18.0	41.9	25.0	13.4	(10,078)
동부	2.0	21.6	47.2	22.1	7.0	(7,450)
읍·면부	1.0	7.6	26.7	33.0	31.7	(2,628)
버스정류장·지하철역(전체)	15.5	57.8	21.7	4.4	0.6	(10,078)
동부	16.0	58.6	21.2	4.0	0.3	(7,450)
읍·면부	14.0	55.8	23.2	5.5	1.5	(2,628)
산책, 운동할 수 있는 공원(전체)	12.3	48.2	30.7	7.0	1.9	(10,078)
동부	11.9	49.7	31.9	6.0	0.6	(7,450)
읍·면부	13.5	43.8	27.3	10.0	5.4	(2,628)

주: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가중치를 반영하여 계산한 결과임.

출처: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 강은나 외, 2023,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563, <표 10-8>.

역, 공원은 걸어서 15분 이내에 위치한 비율이 각각 73.3%, 60.5%로 비교적 접근성이 좋았으나, 이 외 주요 기관·시설까지의 도보 이동 시간은 동부와 읍·면부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동부 거주 노인들은 대체로 주요 기관, 시설까지 도보 이동 시간이 15분 이내(일상용품 구매 장소), 또는 30분 이내(보건의료기관, 행정복지센터, 노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관 등)에 위치한 비율이 70% 이상으로, 주요 생활 인프라 접근성이 비교적 높다. 읍·면부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동부에 비해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주요 기관이 1시간 이상 거리에 있는 비율이 높았다. 일상용품 구입, 보건의료기관까지 도보로 1시간 이상 거리에 있는 비율이 각각 20.4%, 24.5%이며, 행정복지센터까지는 25.9%였다. 또한 노인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복지관은 걸어서 1시간 이상 거리에 위치한 비율(노인종합복지관 30.3%, (종합)사회복지관 31.7%)이 3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외출 시 불편함

신체적 기능 퇴화, 사회적 상실감을 경험하는 노화의 특성상 노년기에는 사회적 고립 상태에 처할 위험이 크다. 이런 의미에서 노년기의 활발한 교류 활동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를 위해 매우 장려된다. 특히 자유로운 외출은 이러한 사회적 교류와 활발한 신체활동의 전제가 된다는 점에서 외출 시 불편 사항을 점검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2023년 조사 결과에서 외출 시 경험하는 불편함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43.4%로, 2020년 34.3%보다 9.1%포인트 높았다. 계단이나 경사로 오르내리기 불편하다는 응답이 17.4%, 버스나 전철 이용 불편이 15.4%로 두 번째로 높았고, 교통수단 부족(9.1%) 또한 외출을 불편하게 하는 요소로 확인되었다. 2020년 결과와 비교하면 계단이나 경사로 오르내리기, 버스(전철) 승하차의 어려움은 감소하였으나, 교통수단 부족을 가장 큰 불편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소폭 증가하였다.

[표 3] 외출 시 불편함

(단위: %, 명)

	없음	버스(전철) 타고 내리기	계단이나 경사로 오르 내리기	교통수단 부족	이동하기 불편한 도로 상태	노인을 배려하지 않은 교통편의 시설	인도가 없어 보행 시 위험	차량이 많아 다니기 위험	기타	계	(명)
응답 비율	43.4	15.4	17.4	9.1	3.7	4.9	1.9	4.1	0.1	100.0	(9,922)

주: 본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가중치를 반영하여 계산한 결과임.

출처: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 강은나 외, 2023,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601, <표 10-30>.

3 교통수단 활용

가. 외출할 때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노년기에 경험하는 변화, 특히 이로 인한 상실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동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교류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노년기에 신체적 장애와 감각 능력 저하 위험이 증가하고, 집 밖에서는 다양한 외부 요인으로 인해 이동 능력이 감소할 수 있다. 노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교통 환경 또한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행동반경을 제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2023년도 조사 결과 노인들은 외출할 때 주로 버스(48.1%), 지하철(13.1%), 택시(6.9%)를 이용한다. 자가용을 이용하는 비율은 28.2%이며,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주로 이용하는 비율은 모두 0.6%로 매우 낮았다. 교통수단 활용에서는 지역별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 비율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동부는 대중교통 이용이 71.6%이나, 읍·면부는 58%에 그쳤다. 대신 자가

용을 주로 이용하는 노인이 읍·면부는 37.5%인 데 비해 동부는 24.9%에 불과했다.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못한 읍·면부는 자가용, 오토바이와 같이 개인용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노인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나. 운전 실태

고령자는 체력 저하, 기능 퇴화를 경험할 경우에도 이용 가능한 이동수단과 특정 이동 보조기구를 통해 자신의 능력과 환경의 요구 사항 사이의 기존 격차를 해소하고 생활 공간을 확장할 수 있다 (Mollenkopf & Hampel, 1994). 예를 들어 고령자의 운전은 외출 욕구를 해소하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현재 운전을 하는 노인 비율은 2017년 18.8%, 2020년 21.9%, 2023년 26.2%로, 노인 운전자 비율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운전을 과거에 했으나, 지금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들이 운전을 그만둔 나이 또한 2023년 조사에서는 66.8세로 조사

[표 4] 외출할 때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단위: %, 명)

	없음 (도보)	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자전거	오토바이	기타	계	(명)
전체	2.1	48.1	13.1	6.9	28.2	0.6	0.6	0.3	100.0	(10,029)
동부	2.5	47.5	17.6	6.5	24.9	0.6	0.3	0.1	100.0	(7,413)
읍·면부	1.2	49.8	0.4	7.8	37.5	0.6	1.7	1.0	100.0	(2,616)

주: 전체 응답자 1만 78명 중 외상 등으로 인해 외출을 아예 하지 않는 응답자를 제외한 1만 29명을 대상으로 조사함. 가중치를 반영하여 계산한 결과임. 출처: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 강은나 외, 2023,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600, <표 10-29>.

[표 5] 운전 실태

(단위: %, 명)

	현재 하고 있음	전에는 했으나, 지금은 하지 않음	그만둔 나이(세) ²	평생 한 적 없음	계	(명)
2023년	26.2	19.7	66.8	54.0	100.0	(10,078)
2020년	21.9	17.8	65.8	60.4	100.0	(10,097)
2017년	18.8	10.5	62.1	70.7	100.0	(10,235)

주: 1) 2023, 2020년은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가중치를 반영하여 계산한 결과임(2017년은 전체 응답자 1만 299명 중 장기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64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2) 운전을 한 적은 있으나 현재는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1990명(2023년), 1794명(2020년) 1078명(2017년)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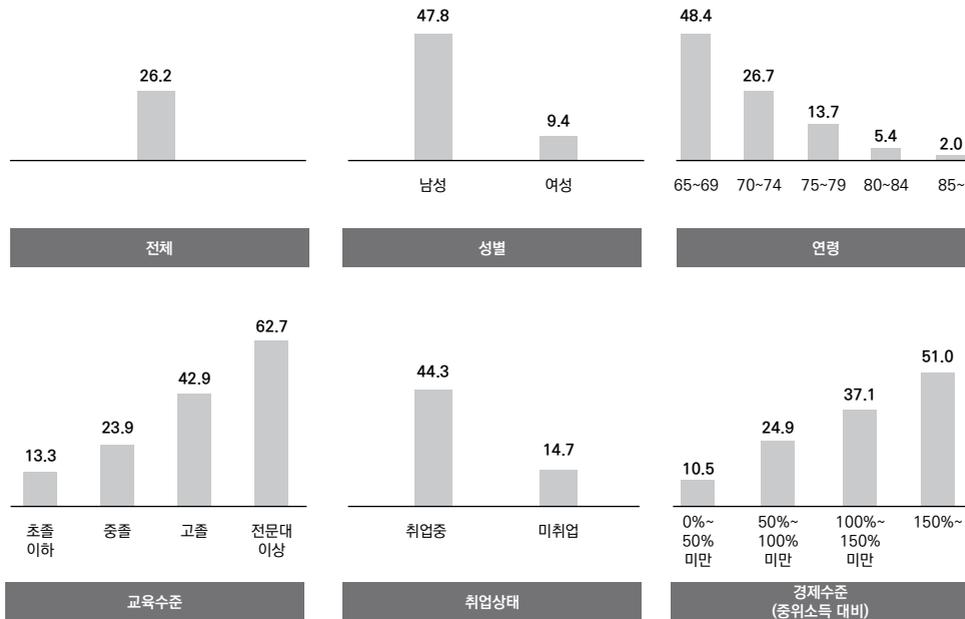
출처: 1)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 강은나 외, 2023,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603, <표 10-31>.

2)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이윤경 외, 2020,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593, <표 11-29>.

3)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정경희 외, 2017,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594, <표 13-9>.

[그림 3] 집단별 운전 실태 차이(2023년)

(단위: %)



주: 전체 응답자 1만 78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가중치를 반영하여 계산한 결과임.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가 도식화함.

출처: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 강은나 외, 2023,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603, <표 10-31>.

되어 2020년 65.8세, 2017년 62.1세보다 늦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운전을 평생 한 적이 없다는 노인 은 54.0%로 과거 조사 연도(2020년 60.4%, 2017년 70.7%)보다 감소하였다.

노인의 운전에서는 집단별 차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성별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남성은 47.8%가 운전을 현재 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여성은 9.4%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운전 비율이 높아 65~69세는 48.4%가 운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80~84세는 운전 비율이 5.4%, 85~89세는 2%에 지나지 않는 등 연령 차이를 보였다. 교육수준별 취업 여부, 소득별 차이도 크게 나타났다. 전문대 졸업 이상 교육수준을 가진 노인은 62.7%가 운전을 하고 있는 데 반해 초졸 이하, 중졸 노인은 각각 13.3%, 23.9%만이 운전을 하고 있다. 취업 상태별로도 취업 중인 노인은 44.3%가 운전을 하는 데 반해 미취업 노인은 14.7%만이 운전을 하고 있으며, 경제수준에 따라서도 중위소득 대비 150% 노인은 절반이 넘는

51.0%가 운전을 하는 반면 0~50%에 속하는 노인은 10.5%만이 운전을 하고 있다.

4 노후생활 인식

가. 노인 연령에 대한 인지

노인 집단의 다양성이 커지면서 기존 노인 연령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사회 전반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노인 연령 기준에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인식 차이 또한 상당하므로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다. 노인실태조사는 노인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노인 연령을 조사하고, 이를 노인 집단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2023년 조사 결과 노년기 시작 기준 연령 인식은 평균 71.6세로 조사되었고, 구간별로는, 70~74세가 44.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75~79세는 21.4%, 69세 이하는 20.9%로 비슷한 비율을 나타냈다. 80세 이상 응답률도 13.0%를 보였다.

[표 6] 노인 연령에 대한 인지

(단위: %, 명, 세)

	69세 이하	70~74세	75~79세	80세 이상	계	(명)	평균(세)
2023년	20.9	44.6	21.4	13.0	100.0	(9,955)	71.6
2020년	25.9	52.7	14.9	6.5	100.0	(9,930)	70.5
2017년	13.8	59.4	14.8	12.1	100.0	(10,073)	71.4

주: 본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가중치를 반영하여 계산한 결과임.

출처: 1)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 강은나 외, 2023,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617, <표 10-38>.

2)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이윤경 외, 2020,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608, <표 11-37>.

3)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정경희 외, 2017,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288, <표 7-7>.

2020년 결과와 비교하면 노년기 시작 기준 연령 인식은 평균 1.1세 높아졌다. 자세히 살펴보면 노인 시작 연령을 75~79세, 80세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6.5%포인트 증가한 반면 69세 이하로 응답한 비율은 5%포인트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노인'이라고 인식하기 시작하는 연령이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다. 최근 세 차례 이루어진 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평균적으로 노인 연령을 70~74세로 생각하는 노인 비율이 가장 높지만, 해당 응답 비율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반면 노인 연령을 75~79세로 생각하는 비율은 2023년 조사에서 이전 두 차례 조사보다 소폭 증가하였다.

나. 노인 차별 경험 및 사회적 존중감에 대한 인식

우리 사회는 과정으로서의 노화, 개인 또는 집단

으로서의 노인에 대한 이미지를 다양하게 생성해 왔다. 노년의 이미지는 삶의 영역에 따라 다르다. 늙는다는 것, 늙어 간다는 것 또는 노인이라는 집단에 대한 다양한 측면이나 특성을 강조하며, 상황에 따라 때로는 다소 긍정적으로, 때로는 다소 부정적으로 표현한다(Kornadt & Rothermund, 2011). 부정적인 태도와 고정관념은 예를 들어 고령 근로자, 의료 또는 간호 분야의 고령 환자 등 고령자에 대한 차별적인 태도와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연령 차별 경험이란 고령자 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로 고정관념, 편견, 차별적 행동을 당하는 주관적인 경험으로 정의해 볼 수 있다. 경험적 연령 차별은 객관적인 차별과 구별되어야 하는 독립적인 구성 요소이다(Rothermund et al., 2021).

연령 차별은 특정한 장소나 상황에 국한되지 않고, 일상생활의 여러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다(Ayalon, 2014). 따라서 노인실태조사에서는 연령 차별 경험을 확인하기 위해 대중교통, 상업시

[표 7] (지난 1년간) 연령 차별 경험 및 차별 경험 상황

(단위: %)

	대중교통 이용	상업시설 이용	공공기관 이용	의료시설 이용	직장	가정
2023년	12.6	14.0	4.5	8.2	5.3	8.6
2020년	20.8	30.8	8.7	12.7	10.6	11.3
2017년	38.2	16.1	7.4	10.1	21.4	-

주: 2023년, 2020년 조사는 본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가중치를 반영하여 계산한 결과임. 2017년 조사는 본인 응답자 중 이전 문항에서 차별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539명을 대상으로 조사함.

- 출처: 1)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 강은나 외, 2023,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620, <표 10-39>.
 2)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이윤경 외, 2020,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612, <표 11-38>.
 3)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정경희 외, 2017,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603, <표 13-15>.

설, 공공기관, 의료시설, 직장, 가정 등을 제시하였다. 조사 결과 지난 1년간 노인이 차별을 경험한 상황은 상업시설을 이용할 때가 14.0%로 가장 높았다.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12.6%, 가정에서는 8.6%, 의료시설 이용에서는 8.2%, 직장과 공공기관 이용에서는 각각 5.3%, 4.5%로 조사되었다. 2020년 결과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대중교통 이용은 8.2%포인트, 상업시설 이용은 16.8%포인트, 공공기관 이용에서는 4.2%포인트, 의료시설 이용에서는 4.5%포인트, 직장은 5.3%포인트, 가정에서는 2.7%포인트 감소하였다. 제시된 모든 상황에서 2020년보다 노인의 차별 경험이 감소한 것은 전반적인 노인과 사회의 인식 변화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노인들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교류하며, 구매활동에 참여하는 데 있어 심리적 저항을 줄일 수 있다.

다. 재산 처리 방식에 대한 인식

바람직한 재산 처리 방식에 관한 생각에서도 지난 세 차례 조사 결과 인식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조사에서 특징적인 발견은 재산 처리 방식에서 자신(배우자)을 위해 쓰겠다는 비율이 이전 조사에서보다 크게 높아졌다는 점이다. 재산을 자신(배우자)을 위해 쓰겠다는 비율은 2020년과 2017년 각각 17.4%, 17.3%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고, 2023년에는 24.2%로 증가했다. 개인의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젊은 노인 세대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장남에게 전부 또는 더 많이 상속하겠다는 노인은 2020년(13.3%)에서 2023년(6.5%) 사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고, 자녀에게 균등 배분하겠다는 비율도 다소 감소했다. 부양을 더 많이 한 자녀,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게 전부 또는 더 많이 상속하겠다는 비율은 소폭 증가했다.

[표 8] 재산 처리 방식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자녀 균등 배분	장남에게 전부/더 많이	부양을 더 많이 한 자녀에게 전부/더 많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게 전부/더 많이	전체 또는 일부 사회에 환원	자신 (배우자)을 위해	기타	계	(명)
2023년	51.4	6.5	8.8	8.4	0.6	24.2	0.1	100.0	(9,955)
2020년	53.5	13.3	7.0	7.7	1.1	17.4	0.1	100.0	(9,930)
2017년	59.5	11.0	3.5	6.1	2.6	17.3	0.1	100.0	(10,073)

주: 본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가중치를 반영하여 계산한 결과임.

출처: 1)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 강은나 외, 2023,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631, <표 10-43>.

2)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이윤경 외, 2020,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623, <표 11-45>.

3)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정경희 외, 2017,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298, <표 7-14>.

5 나가며

이 글에서는 노인이 생활하는 물리적 환경과 생활 인프라,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점검해 보았다. 2023년도 노인실태 조사 결과 노인의 생활환경에서 기존 결과와 비슷하게 노인들은 기존에 살던 곳에서 최대한 오래 거주하고자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개인 주택에서 노인을 배려한 설비를 갖추고 있는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거주 환경의 노인 친화적 개조와 용품 설치율은 높지 않다. 지역사회 인프라는 동부와 읍·면부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외출 시 불편함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나, 계단이나 경사로, 버스 탑승 등에서 어려움을 보고했다. 외출 시에는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만, 자가용을 이용하는 비율도 높았는데, 특히 읍·면부 지역에서 동부보다 자가용을 주로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노후생활 인식에서는 전반적으로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년기 시작 기준 연령이 높아지고 있고, 이전보다 연령 차별을 경험하는 노인들이 감소하고 있다. 생애 말기 중요한 의사결정인 재산 처리 방식에서는 장남에게 전부 또는 더 많이 상속하거나 자녀에게 균등하게 나눠 주겠다는 노인들이 감소하는 대신 자신을 위해 활용하겠다는 비율은 늘어 가고 있다. 글을 마치면서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노인의 생활환경과 노인 집단의 인식 변화를 반영한 제언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노인의 주거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2023년 노인실태조

사에서도 지역사회 연속적 거주에 대한 노인 집단의 욕구가 확인되었다. 조사 결과 가구 내 노인을 배려한 설비를 갖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충분한 수준은 아니다. 비교적 설치율이 높게 조사된 화재·가스 감지기는 공동주택 관리 차원에서 설치 의무를 적용하기도 하고, 가스 안전 차단기는 저소득가구, 노인가구 중심으로 설치 비용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항목이다. 이 외의 고령자 친화적 주택 개조 또는 보조기기 설치하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노인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주택을 노인에게 적합하게 수리하고 개조하는 것이 낙상, 화재 등 각종 방지는 물론 생활 편리성을 높인다는 점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정책적 지원 수단도 더욱 실효성 있게 개발하여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 인프라를 고령 친화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AIP 정책에서는 노인의 거주, 활동 영역 전반을 고려한 진단과 접근이 필요하다. 노화에 따른 기능적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제공하여 건강한 노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AIP의 전제 조건으로 인식되고 있다(Woo et al., 2023). ‘고령 친화적’인 지역사회 인프라는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초고령사회에서는 노인의 욕구와 필요가 적절히 반영된 주거 환경, 지역사회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정책은 거주지에 따른 생활 수준, 기회, 서비스 접근성의 불평등을 줄이고 이를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UNECE, 2022).

이번 조사에서도 지역사회 인프라의 도농 격차가 상당 수준으로 확인된 만큼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농촌 지역의 생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하다.

셋째, 고령 운전자 증가에 대한 사회적 해결책을 논의해야 한다. 최근 고령 운전자가 관련된 사망사고가 연이어 보도되면서 고령 운전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조사 결과 젊은 연령 대일수록 운전하는 비율이 높으므로 향후 노인세대에 편입될 노인들은 운전하는 비율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고령 운전에 대해 커지는 사회적 우려와 반대로 앞으로 도로에서 고령 운전자 비율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고령자 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는 등의 정책이 지자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반납률은 매우 낮다. 특히 이동을 위한 적절한 교통편이 부족한 읍·면부 지역에서 운전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이동권, 나아가 생존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노인들의 일상생활 특성을 고려한 교통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최근 지역별로 콜버스 등 수요응답형 이동버스(DRT) 사업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해결에 긍정적 기대를 하게 한다. 노인들이 직접 운전하지 않고도 필요시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대체 교통수단을 개발하고 확산시키는 정책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전의 결핍 모델에서 벗어난 새로운 노후 모델 확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노화’

는 생물학적 현상임과 동시에 사회적 구성물이다. 최근 세 차례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비교했을 때 노인들의 인식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새로운 노인 집단은 자신의 삶의 질에 높은 가치를 두고 있으며, 사회에서 차별받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현대 노인은 연령으로 구분 지어지고 차별받는 특수 집단이 아니라 높은 구매력을 가진 소비자이자 경력과 경험을 갖춘 직장 근로자, 존중받는 가정 내 구성원이라는 자아상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그간 연령기준 조정 논의에 국한되어 있던 ‘노인’을 재정의하는 사회적 합의 작업이 서둘러 이뤄져야 함을 시사한다. 이전과 다른, 변화된 노인 집단을 대하는 우리 사회 전반의 노인상과 차별 인식을 점검하고, 노인에게 적절한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㉞

참고문헌

- 강은나, 김혜수, 정찬우, 김세진, 이선희, 주보혜, 황남희, 김경래, 이혜정, 최경덕. (2023). **2023년도 노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윤경, 김세진, 황남희, 임정미, 주보혜, 남궁은하, 이선희, 정경희, 강은나, 김경래. (2020).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 오영희, 강은나, 김경래, 이윤경, 오미애, 황남희, 김세진, 이선희, 이석구, 홍송이. (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Ayalon, L. (2014). Perceived age, gender, and racial/ethnic discrimination in Europe:

- Results from the European Social Survey. *Educational Gerontology*, 40(7), 499–517. doi:10.1080/03601277.2013.845490
- Friedrich, K., Ringel, F. (2019). Wohnverhaeltnisse und residentielle Mobilitaet im Alter. *Informationen zur Raumentwicklung Heft 5/2019*. https://www.bbsr.bund.de/BBSR/DE/veroeffentlichungen/izr/2019/5/downloads/wohnverhaeltnisse-mobilitaet-alter.pdf?_blob=publicationFile&v=2
- Kornadt, A. E., Rothermund, K. (2011). Dimensionen und Deutungsmuster des Alterns. *Zeitschrift für Gerontologie und Geriatrie*, 44, pp. 291–298.
- Mollenkopf, H., Hampel, J. (1994). Technik, Alter, Lebensqualität. *Schriftenreihe des Bundesministeriums für Familie und Senioren, Band 23*. Kohlhammer.
- Rothermund, K., Klusmann, V., & Zacher, H. (2021). Age Discrimination in the Context of Motivation and Healthy Aging.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76(2), 167–180. <https://doi.org/10.1093/geronb/gbab081>
- UNECE. (2022). Mainstreaming ageing – revisited. *Policy Brief on Ageing No. 27*(February 2022). <https://unece.org/sites/default/files/2024-07/PB27-EN.pdf>
- Wahl, H-W, & Oswald, F. (2010). Environmental perspectives on aging. (In D. Dannefer, & C. Phillipson, Eds.), *International handbook of social gerontology*(pp. 111–124). Sage.
- Woo, J., Ko, R., Yu, R., Chan, S., Lo, R., & Mo, K. H. (2023). Healthy Ageing Should Be a Key Component of Ageing in Place: Case Study from Hong Kong.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20(10), 5779. <https://doi.org/10.3390/ijerph20105779>

Older Koreans' Living Environments and Perceptions of Living in Old Age

Joo, Bohy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This article uses data from the National Survey of Older Koreans 2023 to examine residential environments and housing conditions for older adults in Korea, along with their perceptions and attitudes toward aging. Older Koreans generally wish to stay in their current homes for as long as they can. However, existing community infrastructure falls short of enabling older adults to make local outings and engage in activities with ease. Furthermore, access to essential amenities varies significantly across regions. Recently, the percentage of older adults reporting experiences of age discrimination has decreased. In addition, older adults increasingly prioritize their quality of life, with more planning to allocate their remaining assets for themselves or their spouse.